

(쭈뼛쭈뼛하면서 상큼한 느낌의 새내기)_대본

S#00. INT, 로비, 낮

커피 자판기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충남.

충남 _____ 충남에서 온 정충남~

그 때, 뒤에서 연남이 웃으며 말한다.

연남 _____ 충남에서 온 정충남~

깜짝놀라며 뒤도는 충남.

연남 _____ 나는 이연남. 안녕.

충남 _____ 아, 안녕.

언니(NA) _____ 나처럼 딱 봐도 포스있음 선배.

충남(NA) _____ 포스 있음, 선배.

연남 _____ 국어국문 18학번? 맞지?

충남 _____ 아, 네! 맞아요!

충남(NA) _____ 자연스러운 말걸기. 어, 맞네, 맞아.

뭔가 생각하더니 외치는 충남.

충남 _____ 저는 민족사학 단결홍인!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신입생!

충남에서 온 정충남! 입니다.

연남 _____ (웃으며) 아, 갑자기 FM?

언니(NA) _____ 신입은 선배한테 잘보이는 게 장땡이야.

충남 _____ 아! 이거요.

자신이 뽑은 커피를 연남에게 공손하게 건넨다.

연남 _____ 아, 나... 주는 거야?

충남 _____ 네! 선배님이라서 드리는 겁니다.

연남 _____ 아~ 선배님이라서? 그럼 선배 아님 안 주는 건가?

충남 _____ 아! 그럼요! 선배님께만! 드리는 겁니다.

잘부탁드리겠습니다!